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69



Contents

※ 2025.3.6.(목) 기준(대상 기간: 2025.2.27.~2025.3.5.)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조금 지원 확대(2025.03.03) 1
- 제6회 울산 수소산업의 날, ‘수소도시’ 울산, 기술인재 양성 인프라까지 구축(2025.02.27) 1
- 울산시·덕양가스, 투자 협약...수소전기차 40만대 사용량 공급(2025.02.27) 2
- ‘도시숲·수소경제’... 평택시, 탄소중립 실현 위한 혁신적 정책 주목(2025.03.03) 2
- 홍천군 수소차 10대 보급 ... 보조금 3,450만원(2025.03.03) 3
- 포항의 미래경제는 철강주권과 수소환원제철에 달려있다(2025.03.03) 3
- 창원시, 수소충전소 기체→액체 전환 실증 속도(2025.03.04) 3
- 전북도, 독일 잘란트주와 ‘바이오·수소·에너지’ 협력 강화 모색(2025.03.04) 4
- “훌륭한 인재로 커달라”...수소에너지고, 신입생 절반 가깝게 장학금 수여(2025.03.05) 4
- “부산서 수소도시 협력 방안 논의의 장 열린다”(2025.03.05) 5
- 삼례로타리클럽 2025년 완주수소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2025.03.05) 5
- 사천시,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총 50대 보급(2025.02.27) 5
-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울진대게축제 기간 홍보부스 운영(2025.02.28) 6
- 청주시, ‘25 상반기 무공해 수소차 구매지원 내달 4일부터 실시(2025.02.28) 6
- 고양시장, 간부회의 개최... 예산집행·대형공연·수소경제 등 주요 현안 점검(2025.03.05) 7

■ UAM

- 2026여수섬박람회, 섬테마파크·UAM 시연 등 핵심사업(2025.03.02) 7
- 김포시, 도심항공교통(UAM) 유관 분야 네트워킹 기업 모집(2025.03.04) 8

▪ 우주	
- ‘부산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조례’제정한다(2025.03.05)	8
- 우주항공청 청사 입지선정위, 신청사 건립 부지로 ‘경남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선정 (2025.02.27.)	9
- 한미 공동개발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 한국시간 3월 1일 낮 발사(2025.02.27)	9
- “사천에 우주항공 산업 미래 달려… 특별법 제정을”(2025.02.27)	10
- 재경 사천향우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조속한 입법 촉구(2025.02.27.)	10
- “우주강국 도약 위해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을”(2025.02.28)	11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 이상목 생기원 원장 “제조산업과 친환경 수소기술 결합 시도할 것”(2025.02.27)	12
- 가스공사 ‘e-메탄·청정수소’ 연구개발로 기술·시장 선도(2025.02.27)	12
- KIER, AI 기반 수소 연료전지 결합 진단기술 발표(2025.02.27)	13
▪ UAM	
- 한국공항공사 ‘UAM용 지상대체항법시스템’ 첫 공개(2025.02.27)	13
▪ 우주	
- 우주청-방사청, 우주개발사업 민·군 협력 본격화(2025.02.28)	14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 BS한양, 여수 묘도에 ‘수소 클러스터’ 건립(2025.02.27)	15
- 두 배 된 조선으로 실탄충전...수소·SMR에 힘주는 HD현대(2025.02.27)	15
- 엘유프로, 오만에서 그린수소암모니아 프로젝트 속도 낸다(2025.02.28)	16
- 전북대,지역연계 수소산업 혁신인재양성(2025.02.27)	16
- 건국대, 수소생산·폐수처리 ‘두마리 토끼’ 잡는 기술 개발(2025.02.27)	17

- “수소 산업도 중국 싹쓸이, 한국도 전략투자 나서야”(2025.02.27)	17
- 한중 수소에너지산업 협력 전략 연구 보고서 요약(2025.03.02)	18
 ■ UAM	
- R&D 투자 늘리는 현대엘리베이터, 로봇·UAM 신시장 개척(2025.03.01)	18
 ■ 우주	
- 양호연의 보당패스 “우주가 새로운 활주로”...항공사들의 미래 산업 진출 러시(2025.02.27)	19
- 달 얼음 탐사·소행성 채굴까지...美 민간기업들 우주로(2025.02.27)	20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조금 지원 확대(2025.03.03) - 환경부가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 등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표한 상황임. 이에 따라 20톤 이상 전기 굴착기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졌고, 전기굴착기의 배터리·모터·총중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능 좋은 장비 개발을 유도 - 수소지게차 역시 안전기준을 충족한 장비에 대해 최대 들어올림 용량별로 정액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지자체와 협력해 실수요자 확대와 인프라 개선에 나설 방침임. 보조금 수혜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다량 구매 시에는 환경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에서도 오염물질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상황임. 전기·수소 동력 장비가 건설 현장에 확대 보급되면 소음·미세먼지 문제 완화와 함께 산업 전반의 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어, 무공해 건설기계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지자체	□ 제6회 울산 수소산업의 날, '수소도시' 울산, 기술인재 양성 인프라까지 구축(2025.02.27) - 울산시가 동남권 핵심 수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술 인재 양성과 시설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제6회 울산 수소산업의 날 행사에서 부산대학교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협력하여 수소미래에너지융합전공 개원식을 진행하고, 매해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배경임. 이에 따라 울산은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적극 확대하며, 동남권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 전망 - 이번 행사에서는 수소 경제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울산시장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더불어 수소 활용 분야 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이뤄진 상황임. 울산시와 SK피아이씨글로벌(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수소 원천기술 투자 유치와 연구개발의 탄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계기임. 또한, 부산대·생기원 공동융합대학원 개원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실증 기술 개발이 적극 추진될 전망 - 울산은 이미 수소 공급 기초 인프라를 갖춘 상태로, 동남권 전역에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소를 도시 전반의 에너지원으로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중임. 이에 맞춰 지역 인재를 결합한 학연 협력 모델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출연연 내부에 대학원 과정을 둔 사례가 탄생한 점이 특징임. 이번 행사가 수소 분야 핵심 인재를 끌어들이고 산업 생태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울산시·덕양가스, 투자 협약...수소전기차 40만대 사용량 공급(2025.02.27) - 울산시와 덕양가스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블루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한 상황임. 블루수소는 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를 의미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말까지 연간 최대 2천t의 수소를 공급하는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임. 이는 수소전기차 40만 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울산에 대표하는 수소도시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전망 - 덕양가스는 사업부지 1만여㎡에 약 180억원을 투입해 생산된 수소를 저장·압축해 튜브 트레이일러에 적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임. 이 협약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블루수소 선도 전략과 맞물려, 수소 공급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관련 생태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울산은 기존 석유화학·자동차·조선 산업과 함께 수소 산업을 4대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힘쓰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녹색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노릴 것으로 기대됨.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청정에너지원 수소 활용 비중을 높이려는 움직임 속에서, 울산이 블루수소 공급 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도시숲·수소경제’ ... 평택시, 탄소중립 실현 위한 혁신적 정책 주목(2025.03.03) - 평택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도시숲 조성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두 축으로 삼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2018년 민선7기 이후 약 8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를 높였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천 개 정원을 조성할 계획 - 특히 평택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수소 모빌리티 보급에 나서며, 수소차·수소버스·수소 카캐리어 등을 도입해 교통 분야에서도 탄소 감축을 선도하려고 함. 권역별 수소충전소 확충을 추진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정부의 수소도시 조성정책과 결합해 수소 특화단지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함께 미래지향적 에너지 전환을 도모 - RE100 실현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평택시는 수입된 청정수소를 에너지 부두 인근에서 친환경 전력으로 전환해 필요한 기업에 공급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음. 이로써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그린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홍천군 수소차 10대 보급 ... 보조금 3,450만원(2025.03.03) - 강원도 홍천군이 올해 수소 승용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총 10대를 지원하고, 대당 3,450만 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4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한 상황임. 현대차 넥쏘를 대상으로 하며, 홍천군 거주 시민이나 홍천지역 소재 법인·사업자가 신청 가능 - 신청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 대리점에서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출고·등록을 2개월 내에 완료해야 함. 2년간 의무운행기간도 지켜야 하며, 지원 대상은 주소지 관리를 통해 엄격히 확인한다는 계획 - 홍천군은 이 사업을 통해 미래 친환경차 기반 구축과 대기오염 저감,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등을 꾀하고 있으며, 향후 전기 이륜차 등 다른 친환경차 보급에도 예산을 확충할 예정임. 주민들의 관심과 신청 증가로 지역 내 수소인프라 구축도 자연스럽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포항의 미래경제는 철강주권과 수소환원제철에 달려있다(2025.03.03) - 기후위기 시대에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석탄 기반 제철에서 벗어나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포항은 포스코가 위치해 국내 철강 주권을 지키는 핵심 지역이므로, 블루수소·그린수소 등을 활용한 환원제철 기술 개발이 포항의 미래 경제를 좌우할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되는 상황 - 필자는 국제도시를 표방하는 포항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 동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용광로 중심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가 필수라 언급함. 조선·에너지·자동차 산업과 연계된 철강산업이야말로 포항의 근본이며, 여기에 수소 환원을 결합해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장기적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 - 아울러, 지역 정책과 시 정부 차원에서 ESG 경영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고질적인 산업 구조 개선과 주민 체감형 일자리·환경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
	□ 창원시, 수소충전소 기체→액체 전환 실증 속도(2025.03.04) - 창원시가 기존 기체수소 충전소를 액체수소 충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실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임. 액체수소는 부피가 기체 대비 크게 줄어 운송·저장이 수월하고, 차량이나 드론 등의 수소탑재량을 늘릴 수 있어 차세대 수소 모빌리티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창원산업진흥원은 2022년부터 ‘수전해 기반 35MPa급 S-HRS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해 올해 말까지 실증을 마무리하고, 기존 충전소에 액체수소 공급 체계를 도입하려고 추진 중임. 특히 AEM(음이온교환막) 수전해 기술로 그린수소를 생산해, 충전소 운영 효율과 친환경성을 높이겠다는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대형 액체수소 운송 탱크 트레일러도 개발 중이며, 시는 액체수소 출하시설 실증을 통해 국내 액체수소 운송 기술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향후 액체수소 충전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수소차 보급 활성화와 다양한 수소연료 활용 사업이 동시에 성장해 창원시가 수소경제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 증가
	□ 전북도, 독일 잘란트주와 ‘바이오·수소·에너지’ 협력 강화 모색(2025.03.04) - 전북도가 독일 잘란트주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바이오·수소·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상황임. 잘란트주는 유럽 중심에 위치해 자동차, 철강, 바이오 산업이 발달했으며, 전북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거점이 될 가능성 모색 - 이번 만남에서 지역 내 9개 바이오·에너지 관련 기업이 참석해 현지 투자·교류 방안을 타진했으며, 대표단은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및 새만금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 등을 둘러보며 전북의 기술 역량과 산업 인프라를 확인함. 전북은 이미 잘란트주 KIST유럽연구소에 ‘전북글로벌 바이오 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해 협력을 추진해온 바 있는 실정 - 전북도는 수소 기반 산업과 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선진지역과의 협력이 필수라 판단하고 있음.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 지역이 공동 연구·인력 교류·투자 유치 등을 확대하면, 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전북 바이오·수소산업 발전에 긍정적 시너지 효과 기대
	□ "훌륭한 인재로 커달라"...수소에너지고, 신입생 절반 가깝게 장학금 수여(2025.03.05) - 전북하이텍고에서 새롭게 출범한 수소에너지고(교명 변경)가 신입생 중 72명 중 34명에게 대규모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 수소산업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완주수소장학회가 창립되어 기업과 지자체, 지역 단체의 기금 지원으로 장학금을 마련했으며,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는 기탁자들이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따뜻한 응원과 협력 분위기가 조성됨. 수소에너지고는 향후 완주 지역의 기업과도 긴밀히 협업해, 학년별로 맞춤형 현장실습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제공하여 수소 분야 전문 역량을 키우겠다는 계획 - 교장 측은 지역사회와 기업, 학교가 하나의 협약형 모델을 만들어 미래 수소 전문가를 길러내고, 졸업생들은 지역 내에 정주하면서 산업 발전을 주도해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고 강조함. 이에 따라 완주군과 협약기업들은 추가 장학금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성장 경로를 적극 후원할 예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부산서 수소도시 협력 방안 논의의 장 열린다"(2025.03.05) - 국토교통부가 부산에서 ‘수소도시 민·관 협력 워크숍’을 개최해,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계획 중인 지자체와 기업들이 모여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2026년 신규 수소도시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상황임. 이번 워크숍에는 수소도시융합포럼 콘퍼런스, 신규 사업 설명회, 민·관 협력 토론회 등이 이틀간 진행될 예정 - 수소도시 사업은 주거·업무·교통 등 도시 전반에 수소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국비 2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시범사업은 울산, 안산, 전주·완주 등에서 이미 시작됐고, 올해는 평택 등 전국 12개 지자체로 확대되는 추세임. 이를 통해 연료전지발전, 수소배관 구축, 수소충전소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될 전망 - 포럼에서는 현대차, 두산퓨얼셀 등이 참석해 기술 동향과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 토론회에서는 업계와 정부가 함께 수소도시 보급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함. 국토부는 “수소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의 핵심이 될 것이므로, 민간의 혁신기술과 자본이 적극 유입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 삼례로타리클럽 2025년 완주수소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2025.03.05) - 삼례로타리클럽이 완주 수소에너지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지역 내 수소에너지 미래 인재들을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한 상황임. 완주수소장학회는 완주군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19개 단체가 참여해 조성된 기금으로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실정 -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학생 19명에게 30만~5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기부자와 학생들이 직접 만나 격려를 주고받는 뜻깊은 시간을 가짐. 수소에너지고는 향후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 - 완주군은 수소 특화 교육과 연계한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있음. 삼례로타리클럽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업체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완주가 수소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힘을 더할 전망
	□ 사천시,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총 50대 보급(2025.02.27) - 경남 사천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5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하며, 현대자동차 넥쏘를 기준으로 1대당 3,310만 원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상황임. 총 50대를 보급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게 우선 배정해 다양한 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 - 사천시는 앞으로 수소차 확대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등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구축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 형태로 진행됨.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미래지향적인 교통 패러다임을 꾸준히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 - 시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이 향후 사천시를 대표하는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는 첨병 역할을 할 것” 이라고 언급함.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지면서, 향후 사천시의 수소차 이용자 수가 늘고 충전시설 또한 개선되어 지역 내 그린에너지 기반이 강화될 전망
	□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울진대게축제 기간 홍보부스 운영(2025.02.28) - 울진군이 후포항에서 열리는 ‘2025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기간 동안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수소경제의 중요성과 청정 에너지의 비전을 적극 알리고 있는 상황임.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 기술과 청정 에너지원 확보 방안을 소개해 지역경제와 국가 에너지산업의 미래 잠재력 홍보 - 홍보부스에서는 탄소 배출 저감 효과와 수소 활용의 장점을 자세히 설명하며, 방문객들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수소경제의 이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울진군은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가치와 파급효과를 인식시키고, 향후 수소 기반 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설정 - 군 관계자는 “울진을 수소 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체험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언급함. 축제 기간 중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소개와 함께, 방문객에게 미래 에너지 비전을 체감케 함으로써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유도
	□ 청주시, '25 상반기 무공해 수소차 구매지원 내달 4일부터 실시(2025.02.28) - 청주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 상반기 무공해 수소차 구매지원사업’ 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상황임. 수소 승용차는 대당 3,350만 원, 수소 고상버스는 대당 3억5천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총 3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80대를 보급할 계획 - 우선 보급 대상은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으로, 이를 통해 친환경차 확산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임. 시는 상반기에 수소 승용 225대, 수소 고상버스 23대를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 - 청주시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등을 통해 수소차 보급 안정성을 높이고, 도심 내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려 노력 중임. 향후 충전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여 수소차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환경친화적 교통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전략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고양시장, 간부회의 개최... 예산집행·대형공연·수소경제 등 주요 현안 점검(2025.03.05) - 이동환 고양시장이 간부회의를 열어 2025년 주요 예산집행과 신속집행 현황, 대형 공연·축제 준비 상황, 미니수소도시 조성 등 현안을 점검한 상황임. 특히 도시경영자 마인드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위탁운영기관의 운영 체계 확립과 국도비 매칭사업 비율 확대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 - 대형공연과 문화행사를 통해 고양시를 글로벌 공연·문화예술도시로 알리겠다는 전략을 강조했으며, 방문객 대상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 전반을 꼼꼼히 검토할 계획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수소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 - 경관디자인 개선,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 등 분야별 보고도 이뤄졌으며, 이동환 시장은 “공직자 모두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소경제를 활성화해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함. 이를 위해 시민 생활 안전과 문화 예술,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할 계획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2026여수섬박람회, 섬테마파크·UAM 시연 등 핵심사업(2025.03.02)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섬테마파크 조성과 UAM 비행 시연 등을 핵심사업으로 설정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함. 여수시가 섬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첨단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UAM 기술을 접목해 미래 섬 관광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임. 섬 캠핑·트래킹 프로그램과 예술로드·테마존 등의 계획도 함께 발표하며,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전망 -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섬박람회 개최 시 K-미디어 섬 테마파크를 구축해 섬 문화를 디지털 콘텐츠로 구현하고, 항공 모빌리티 전시와 시연을 병행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마련할 예정임. 해양관광자원과 첨단 모빌리티를 융합한 행사로서,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지속 활용 가능한 기반시설을 갖추겠다는 전략이 제시됨. 특히 섬 연안을 잇는 크루즈 운항 등도 도입되어, 여수 섬들의 매력을 극대화할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조직위는 섬 박람회의 핵심사업들이 지역 정체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여수 고유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반영해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있음.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섬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 표명
	□ 김포시, 도심항공교통(UAM) 유관 분야 네트워킹 기업 모집(2025.03.04) - 김포시가 3월 말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유관 분야 기업의 네트워킹 참여를 위한 모집을 진행함. 항공 기체·부품 제작, 운항, 관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UAM 산업으로 전환 또는 확장에 관심 있는 관내 기업들이 대상임. 이를 통해 김포시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도심항공교통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해 산업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모집을 통해 기업 규모·분야 등을 파악한 뒤, 해당 기업들과 함께 네트워킹 방안을 모색하고 하반기에 있을 ‘2025 서울 ADEX(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를 위한 협업 전략을 마련할 예정임. 김포시는 공역 및 항로 분석, 모빌리티 전시회 참가 등 지난해부터 다각적으로 움직이며 UAM 산업 기반을 닦고 있음. 전문가와 기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제 비행 시연과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 - 시 관계자는 신산업 도입과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협력할 기회를 마련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김포시는 기존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며, UAM 산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는 현장 네트워킹과 정책 지원을 제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굴할 전망
	□ ‘부산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조례’ 제정한다(2025.03.05) -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이 ‘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임. 미래항공 클러스터 구축 등 부산시가 역점 추진하는 산업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항공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임. 부산은 김해공항 서측 일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 확장 - 조례안에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계획 수립,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투자 유치 촉진 등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될 예정임. 이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우주항공청을 필두로 한 우주항공 클러스터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만큼, 부산시도 선제적으로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향후 항공우주 분야 기업과 연구소가 도시에 모여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부산시는 이미 독일 에어버스 자회사 등과 미래항공 육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AI 자율제조(항공분야)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음.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가 추진 중인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임. 전문가들은 지역 기반의 정책이 활성화되면 부산이 동남권 항공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우주항공청 청사 입지선정위, 신청사 건립 부지로 '경남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선정(2025.02.27) -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거점이 될 우주항공청 신청사 부지가 경남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로 최종 확정된 상황임. 이번 결정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나온 결과로, 3곳 후보 중 사천지구가 핵심 인프라와 확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국내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 산업 육성, 인재 양성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 - 경남도와 사천시는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 지역사회는 신청사 건립을 발판 삼아 관련 기업 유치, 첨단 연구시설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주력하며,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안착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특화된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 -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사천이 가진 항공산업 기반과 수많은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세계 우주 5대 강국 진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함. 또한 연구개발 역량과 시험평가 시설이 한곳에 집적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임. 향후 관련 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사천이 국내 우주항공의 대표 거점도시로 성장할지 주목된다는 입장 표명 ☐ 한미 공동개발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 한국시간 3월 1일 낮 발사(2025.02.27) -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가 3월 1일 미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임. 당초 2월 28일로 계획됐으나 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사체 준비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는 설명이 있음. 스피어엑스는 적외선 영역에서 관측을 수행해 우주 초기 구조와 물질 분포를 탐구하는데 활용된다는 소식 - 스피어엑스는 세계 최초로 19억여 개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우주가 만들어진 초기 과정과 은하 형성 진화를 연구할 계획임. 또한 생명체 존재 가능성과 관련된 분자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전천(全天) 분야를 다각도로 조사한다는 방침임. 이 시스템은 NASA의 중형 탐사 미션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천문연구원도 핵심 분야에서 역할을 맡아 공동개발을 주도 - 스피어엑스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시작한다면, 천문학과 우주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한국천문연구원의 참여로 국내 연구자들은 방대한 관측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주과학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첨단 우주망원경 공동개발
지자체	□ “사천에 우주항공 산업 미래 달려… 특별법 제정을” (2025.02.27) - 사천시와 경남도, 지역 정치권이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 확정 이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 우주항공청이 본격 가동하려면 연구기관, 기업, 교육시설, 정주여건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법적 지원이 필수라는 입장임. 이를 통해 사천이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 - 관계자들은 우주항공청 신청사와 주변 인프라가 연계되어야 ‘세계 5대 우주강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함. 이에 따라 연구개발 환경과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안전성·효율성을 담보할 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국회 내 법률 제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지역 주민들도 발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 지지한다는 분위기 - 사천시장과 도지사 등은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범도민 차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전문가들은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완성된다면 세계적 항공우주 기업들과의 협력,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함. 이로써 사천 지역에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국내 우주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재경 사천향우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조속한 입법 촉구(2025.02.27) - 재경 사천향우회가 신년 교례회 겸 정기총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별법’ 조속 입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이목을 집중시켰음. 이들은 사천이 우주항공청 소재지로 확정된 만큼,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우주항공복합도시가 되기 위해선 산업 생태계, 인프라, 교육 기관 등의 조성이 필수적이어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 행사에서는 송성광 재경 사천시향우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역설했고, 참석자들은 구호와 서명운동을 통해 입법 지지를 표명함. 박동식 사천시장은 사천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을 견인할 전략적 지점임을 거듭 강조하며, 향우들이 서울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함.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를 핵심 사업이라는 평가 제기 - 재경 사천시향우회 측은 입법화가 이루어지면 사천시가 우주항공기업 집적, 연구개발 시설 확충,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기대함. 이를 통해 세계 5대 우주강국 진입 목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봄.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길 바란다는 견해가 이어지는 상황 □ “우주강국 도약 위해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을” (2025.02.28) - 경남도의회 임철규 의원이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해야 한다며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소식임. 사천은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국내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항공 인프라가 제한적이어서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활주로 추가 연장, 화물터미널 신축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자는 주장이 존재 - 임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국가적 차원의 항공 수송 및 물류망이 필수라고 강조함. 특히 영남권 서부 지역과 남해안 신경계권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사천공항을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의도를 밝힘. 이는 우주항공 관련 장비와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사천 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이 실현될 경우,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경남도와 사천시는 행정력을 모아 제7차 공항개발 중합계획에 사천공항 확장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산업과 연계된 글로벌 물류, 정비센터 등 추가적인 산업 기능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실정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이상목 생기원 원장 “제조산업과 친환경 수소기술 결합 시도할 것” (2025.02.27)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 이상목 원장이 ‘수소경제 전문가 세미나’에서 “제조산업에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결합해 GX(녹색전환)를 이끌겠다”는 기조연설을 진행한 상황임. 수소 분야 기업·연구기관들이 모여 국내외 수소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생산·저장·운송 전 주기에 걸쳐 실증 중심 기술 개발 전략을 논의함으로써 경쟁력 확보를 모색 - 생기원은 기업 수요조사를 거쳐 청록수소, 고체수소 저장, 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 16대 유망 수소기술을 선정했으며, 이 기술들이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실현에 큰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함. 이상목 원장은 “생기원이 생산·활용 실증연구를 확대해 수소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 - 국내외 선진국들이 수소 기반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상황에서, 생기원은 정부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해 실증단계를 가속화하고 맞춤형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임. 특히 철강·자동차·화학 등 대표 제조산업에 수소기술을 접목해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기대함.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제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전망
	□ 가스공사 'e-메탄·청정수소' 연구개발로 기술·시장 선도(2025.02.27) - 한국가스공사가 e-메탄과 청록수소 등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연구하며, 국내 수소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임. 특히 e-메탄은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그린수소로부터 합성된 메탄으로, 천연가스 대체 가능성이 커 해외 여러 나라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가스공사는 2040년 상용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연구 진행 - 청록수소는 천연가스를 고온 분해하여 생산하는 수소로, 부산물인 고체탄소를 판매해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됨. 기존 천연가스 인프라를 재활용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관련 기획연구를 바탕으로 ‘용융축매 활용 천연가스 열분해 기술’을 우선 개발 과제로 선정했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이어갈 계획 - 정부가 수소도시·수소특화단지 등을 지정하고 본격 지원에 나서면서, 향후 화석 연료를 대체할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수소가 부상하고 있음. 가스공사는 이러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흐름에 발맞춰 전주기 수소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청정에너지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국내 수소 생태계 조기 전환에 기여하겠다는 방침 □ KIER, AI 기반 수소 연료전지 결함 진단기술 발표(2025.02.27) -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수소산업 채용박람회 수소세미나에서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수소실증연구센터가 AI를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 결함 진단 기술을 선보인 상황임. 이 기술은 연료전지 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이상징후를 인공지능으로 조기에 감지해 효율 저하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실정 - 수소 연료전지는 장시간 운전 시 내구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며, 한 번 고장이 발생하면 복구와 교체에 드는 비용이 커 산업 현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음. KIER이 개발한 AI 진단기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연료전지 시스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해 수소 활용을 더욱 활성화할 가능성 제고 - 현재 국내외 수소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연료전지 상용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개발 경쟁도 치열함. KIER의 AI 결함 진단기술은 향후 수소차, 수소 선박, 분산형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어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운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한국공항공사 'UAM용 지상대체항법시스템' 첫 공개(2025.02.27) - 한국공항공사가 부산 벡스코 ‘드론쇼 코리아 2025’에서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UAM용 지상대체항법시스템을 선보인 상황임. GPS 신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UAM이 안정적으로 항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기착륙시설 원리를 적용해 개발한 장치임. 지난 12월에 시스템 개발을 마쳤고, 드론상업화 컨퍼런스에서 작동 원리와 활용 가능성을 공개함으로써 미래항공교통 시장에서 국내 기술 경쟁력을 입증 - 이번 행사에서 공사는 드론교통관리체계(UTM)와 불법드론대응시스템, 항행시설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점검용 드론 같은 다양한 제품도 함께 소개함. 이를 통해 향후 드론과 UAM을 활용한 안전·물류·교통 분야 전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시사 - 공사는 이러한 장비와 관리체계를 전국 공항 현장에 적용해, 드론 물류와 도심항공교통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목표를 밝힘. 아울러 국내 드론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항공교통체계를 고도화하여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선도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함. 이번 전시회 참가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시스템을 대내외에 홍보하며,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우주청-방사청, 우주개발사업 민·군 협력 본격화(2025.02.28) -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이 민·군 우주개발 협력을 위해 국장급 협의회를 시작하며, 발사체 기술과 발사장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공동 추진 방향을 논의함. 민군협력진흥원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양 기관은 국가 우주발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계획 제시 - 우주항공청은 우주수송부문장, 인공위성부문장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방사청과 공동기술 개발, 정보 교류, 사업 인력 협력 등을 추진함. 특히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이나 발사체 고도화 사업 등에서 민·군이 서로 보유한 노하우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임. 이를 통해 효율적인 우주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 상용화 속도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방사청 측도 민간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인프라를 활용하면 국방 우주 분야 경쟁력이 한층 높아진다고 강조함. 향후 정례 협의회를 통해 우주발사 인프라 확충, 위성 활용 극대화, 발사체 재사용 기술 검토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룰 예정임. 전문가들은 민·군 협력이 세계 우주산업 흐름에 맞춰 안정적으로 역량을 축적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BS한양, 여수 묘도에 ‘수소 클러스터’ 건립(2025.02.27) - BS한양이 전남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과 연계하여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임.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LNG 기반 수소 생산·유통·소비·CCUS(탄소포집·활용·저장)에 이르는 종합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연간 10만t에 이르는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임. 이를 통해 LNG에서 추출된 수소를 활용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별도 매립지로 운송하는 액화이산화탄소 터미널도 함께 조성한다는 구상 - BS한양은 전남도, 여수시와 협업해 글로벌 CCS, 수소 기업들과의 기술·투자 협력에 적극 나선 상황임. LNG 열병합발전소와 수소 생산시설이 함께 들어서면서 청정에너지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관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BS한양 관계자는 LNG를 활용한 수소 산업과 CCUS 분야 등 에너지 사업을 다각화하며 청정에너지 구축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임. 향후 탄소 중립과 수소경제 전환에 있어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소 에너지 생산과 공급체계를 마련해 수소 클러스터를 본격 추진할 전망
	□ 두 배 뛰 조선으로 실탄충전...수소·SMR에 힘주는 HD현대(2025.02.27) - HD현대그룹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발판 삼아, 수소연료전지와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임. 조선 중간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보유한 HD현대중공업 지분 일부를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 약 6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연구개발(R&D)과 해외사업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권오갑 HD현대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수소와 SMR을 지목했으며, HD한국조선해양은 연료전지 전문회사 컨비온 인수와 함께 ‘HD하이드로젠’을 설립해 연료전지 사업 전반을 총괄 중임. 이를 통해 수소 생산-운송-활용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며 글로벌 수소 시장 경쟁에서 우위 차지 - SMR 분야에서는 미국 선급으로부터 컨테이너선 설계에 대한 기본인증을 받았고,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와 협력해 부유식 SMR 실증을 2030년경 추진 중임. HD현대그룹은 조선 산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해, 미래 에너지 사업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함으로써 불확실한 경기 흐름 속에서도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지 표명
	□ 엘유프로, 오만에서 그린수소암모니아 프로젝트 속도 낸다(2025.02.28) - 그린수소 자원생산기업 엘유프로가 오만에 설립한 합작회사를 통해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연간 500만 톤 규모의 그린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이는 포집된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수소경제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실정 - 엘유프로는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 등 주무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프로젝트 진행 절차를 조속히 실행하기로 협의했고, 기술투자 협력에 대한 지원을 확인한 상황임. 특히 오만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 및 투자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는 전 세계 수소 수요 기업과 국가에 공급될 예정이며,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엘유프로는 오만을 그린수소 자원 생산 전초기지로 활용해, 점차 수소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는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
대학교	□ 전북대,지역연계 수소산업 혁신인재양성(2025.02.27) - 전북대학교가 aT센터에서 열린 제1회 수소산업 채용박람회에 참가해, 지역연계형 수소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전북대는 수소 분야 기업들과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 배출에 집중 -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수소 관련 기업·기관 30여 곳이 참여해 구직자를 만났고, 전북대 학생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홍보하며 현장 면접과 정보 교류를 가졌음. 특히 대학 차원에서 수소 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과 실무 프로젝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의지를 재확인 - 지역 기반 대학교가 수소경제 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과의 협력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필수적이라는 평가임. 전북대의 사례는 지자체, 산업체,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전북권 수소·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촉매제가 될 전망 □ 전국대, 수소생산·폐수처리 ‘두마리 토끼’ 잡는 기술 개발(2025.02.27) - 전국대 배성준 교수팀이 카드뮴 황화물(CdS) 계열 광촉매에 금속 유기 골격체(MOF)를 결합한 나노복합체를 개발함으로써, 태양광 기반 수소 생산과 염료 폐수 정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을 선보인 상황임. 이 복합체는 낮은 광효율과 전하 재결합을 문제를 개선하여 산업 폐수 처리를 친환경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수소를 생산하는 효과 기대 - 이번 연구에서 배 교수팀은 CdS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전자전달 물질로 MOF를 활용해 고효율 촉매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산업 현장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대량 수소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음. 특히 폐수 내 유해 염료 12종을 높은 분해율로 처리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확보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는 실정 -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며, 차세대 수소에너지 및 환경공학 융합 분야에서 큰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임. 향후 추가 연구와 실증 과정을 거쳐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면, 국내외 기업들이 수소 생산과 폐수 처리를 동시에 수행해 비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전망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수소 산업도 중국 싹쓸이, 한국도 전략투자 나서야” (2025.02.27) - 한국산업연합포럼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수소경제 세미나에서, 중국의 수소 생산·소비가 전 세계 30% 수준을 차지하면서 수소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임. 전문가들은 한국이 수소 모빌리티 등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적정 가격의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 발표에 따르면 수소차 분야에서도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철강 등 탄소 중심 산업에서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임재준 하이넷 부사장은 국내 수소 충전인프라의 열악한 수익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수소차 확대와 적정 가격 달성을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함. 결국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수소 활용 확대가 중요 과제로 부상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또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자체 협력이나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수소 환원 제철,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같은 전략적 산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중국의 공세 속에서 한국 수소산업이 생존하려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일관된 투자 로드맵과 보조금·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
	□ 한중 수소에너지산업 협력 전략 연구 보고서 요약(2025.03.02) - 베이징 금문 법률사무소 탄소중립·ESG 연구센터 한승훈 박사가 ‘한중 수소에너지산업 협력 전략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의 수소 생산이 이미 전 세계 30%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이 2050년 청정수소 100% 공급 목표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한 상황임. 보고서는 생산·운송·저장·활용 전 주기에 걸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 - 중국은 2024년부터 에너지법 제정과 수소법 입안을 추진하며, 그레이수소 중심에서 청정수소로 전환해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국은 2050년 수소 최대 에너지원화를 추진 중이지만 80%를 해외 수입에 의존할 전망이어서, 가까운 중국에서 경제적·안정적으로 청정수소를 조달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 보고서는 한중 수소에너지산업 협력 협의체 구성, 공동인증 제도 도입, 보조금 차별 예방, 인프라 표준화 등이 핵심 과제임을 지적함. 또한 지자체 간 협력 사례로 울산과 광주를 언급하며, 정부 간 MOU 체결과 수소협력 국장급 대화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R&D 투자 늘리는 현대엘리베이터, 로봇·UAM 신시장 개척(2025.03.01) - 현대엘리베이터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2023년 들어 분기·사업보고서에 명시된 연구개발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짐. 로봇 연동 엘리베이터와 도심항공교통(UAM)을 위한 버티포트(H-포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의지 표명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현대엘리베이터가 주력하는 첨단 유지관리 서비스 ‘미리(MIRI)’ 나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승강기 상용화 등은 모두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됨. 또한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협업해 엘리베이터와 로봇의 연동기술 표준을 구축하고, UAM을 위한 수직격납형 버티포트를 정부 과제를 통해 연구함으로써 차세대 이동 환경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 - 이 같은 전략은 단순 건설 수주를 넘어 유무인 복합 이동솔루션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읽힘. 네움시티, 대구시 버티포트 구축 등 국내외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를 타진하며, ‘승강기 산업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선도 기업’이라는 비전을 구체화 중임.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파트너십을 통해 로봇·UAM 등 신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전략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양호연의 보딩패스 "우주가 새로운 활주로"...항공사들의 미래 산업 진출 러시 (2025.02.27) -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우주산업 분야로의 확장을 모색하며 미래 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음. 도심항공교통(UAM)이나 초음속 여객기, 우주 관광 등 첨단 항공기술에 적극 투자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 상황임. 이에 따라 기존 민간 항공사들이 우주여행이나 상업용 우주 비행에서 더욱 큰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 -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등은 eVTOL(전기 수직이착륙기) 개발과 초음속 기술 투자에 나서며 미래 항공 교통을 선점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버진 갤럭틱을 통해 우주여행 산업을 개척한 버진 그룹 사례나 보잉, 에어버스가 우주탐사와 위성 개발에 적극적인 점도 이러한 트렌드를 뒷받침함. 우주산업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의 새로운 장으로 급부상했다는 평가가 제기 - 국내에서는 대한항공이 무인기 개발, 항공기 제작, 정비 분야를 넘어 우주발사체와 위성기술까지 적극 연구 중임. 최근 개최된 드론쇼코리아 2025에서 자체 개발한 UAM 교통관리 시스템과 무인기 기술 등을 대거 선보이며 주목받았음. 전문가들은 항공사들의 다각화 전략이 미래 교통 및 우주시장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달 얼음 탐사·소행성 채굴까지...美 민간기업들 우주로(2025.02.27) -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들이 달 남극 얼음 탐사부터 소행성 채굴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고 있음.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무인 달 탐사선 ‘아테나’를 발사체에 실어 보낸 뒤 달 남극 분화구 근처 착륙에 도전하고, 탐사 드론을 활용해 얼음 존재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동시에 다른 스타트업들은 귀금속이 풍부한 소행성에 대한 채굴 시도 준비 - 달에서 물이나 얼음을 확보하면 앞으로 심우주 탐사와 우주경제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임. 달이 우주 탐사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저비용 연료 공급과 통신 기지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소행성 채굴에 성공하면 대규모 금속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민간기업들의 이 분야 경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가 감지 -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이 뛰어드는 우주개발이 국가 주도의 우주정책과 결합해 훨씬 빠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함. 스페이스X, 인튜이티브 머신스 등 업체들의 발사체 기술력과 탐사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달 착륙 성공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소행성 자원 확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임. 우주경제가 미래의 거대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민간기업들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는 상황
기타	- (해당 없음)

- 끝 -